

개성상인 삼포경영 원가계산 구조 분석 I*

- 박영진가 삼포 도중 사례를 중심으로(1896~1901) -

전 성 호**

요 약

본 연구는 개성상인 후손 박영진가에 소장된 조선 후기 일기장, 외상장책, 타급장책, 주회계책의 삼포 경영 관련 거래 기입을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삼포경영과 관련된 기입이 일기장과 외상장책 그리고 주회계책에 각각 어떻게 분개(Journalizing)·전기(Posting)·요약(Summation)되어 있는지를 제시하여 한국 고유의 제조원가계산 시스템의 특징을 파악한다. 이를 위하여 거래발생순서대로 기입된 일기장의 인삼 제조과정 관련 기입과 오늘날 제조원가(재공품) 계정에 해당되는 외상장책의 각 삼포별 종삼(種蔘)구입비, 삼포 조성에 투입되는 재료비, 그리고 삼포 경작 노동에 투입된 노무비 계정을 중심으로 제조원가 계산구조를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성상인의 송도치부법은 상업거래 뿐만 아니라 인삼 제조 과정의 원가 계산을 위해서도 가능한 것을 구명한다. 본 연구에 의해 개성상인의 3대 상업제도로서 알려진 시변제도, 차인제도, 송도치부법은 인삼 제조 산업의 정치한 원가 계산을 위해서도 발달해 왔음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 의해 합리주의 문화의 실체로서 개성상인의 삼포 경영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증할 수 있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그 동안 한국 역사학과 경영사학계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식민지 이전 조선 후기에 이미 내재적으로 근대적인 자본주의적 경영활동이 존재해왔다는 가설에 더욱 확고한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주제어〉 삼포경영, 제조원가(직접원가), 상업자본, 산업자본, 합리적 이윤추구

* 본 논문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명한다.

**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과학부, mingoo@aks.ac.kr.

I. 머리말

지금까지 송도치부법에 대해서는 국내 회계사학 분야에서 복식부기 기술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무 자료의 부재로 현대 경영학에 유의미한 연구의 진척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회계의 주요 목적이 외부이해관계자를 위한 재무회계를 포함하여 내부이해관계자를 위한 관리회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기원으로서 송도치부법이 어떻게 기능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6년산 인삼 등 장기간 생산과정을 필요로 하는 개성상인의 삼포경영에서 원가의 흐름과 계산 절차 및 원가 형성 과정에 대해 체계적인 회계기록을 남겼다면 오늘날 과거 지향적 재무회계와 미래지향적 관리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매우 귀중한 기록임에 틀림없다.

그 동안 선행 연구자들은 개성상인의 삼포경영과 송도치부법 그리고 시변(時邊) 신용제도는 상호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달해 왔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제기해 왔다. 이 중에서도 특히 삼포경영활동과 송도치부법의 관계는 1960년대부터 남북한 역사학자들이 공동으로 주목한 연구 주제이다. 홍희유는 역사과학지에 「송도 4개문서(四介文書)에 반영된 송상(松商)들의 도가(都賈)활동」, 「17세기 이후 인삼재배의 발전과 자본주의적 삼포경영」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조선 후기 형성된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의 실체와 송도치부법의 관계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그는 먼저 송도정치경제대학 소장의 18~19세기 외상정책과 타급정책의 면포 거래 기입을 근거로 전국적인 시장망에서 활동하는 상업자본의 실체를 밝혔다. 또한 같은 자료로 추정되는 1840년 11월 20일부터 1850년 6월 9일 거래기입의 이익배당관련 거래를 소개하여 삼포에 투자한 자본이 생산과정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투자한 정도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는 오늘날 산업자본과 제조기업 회계와 같은 합리적인 영리 추구의 존재를 제시하였다.¹⁾

홍희유의 업적에 이어서 최근 발표된 일련의 연구는 그 동안의 복식부기 회계 방식에만 치우친 것에서 벗어나 삼포에 집중된 투자를 행하는 산업자본적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삼포 경영자금의 유통과 관련된 신용 기법이나 환어음 유통 등을 다루어 오늘날 금융업을 포괄하는 자본주의 경영활동 전반적인 범위로 확대하는 추세이다(고동환 2010, 271-300; 전성호 2011d, 152-200, 2011c, 349-384; 양정필 2008,

1) 홍희유(1986, 1989) 연구에서 소개한 외상정책(1884. 10. 28~1897. 10. 10)과 타급정책(1786. 04~1786. 05. 22)은 현재 북한사회과학원이 소장하고 있는 개성상인 회계장부 중 가장 오래된 타급정책의 첫 페이지만이다. 역사학계에서는 姜萬吉(1972, 1973), 吳星(1992), 양정필(2002)의 연구가 주목된다. 2000년대부터 태평양문화장학재단의 지원으로 경영학계에서 다수의 개성상인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김성수 2002; 박상규 2003; 고승희 2005).

51-98). 특히 양정필은 근현대 개성상인의 3대 상업제도로서 시변제도, 차인제도, 사개치부법을 주요 사업부문인 인삼 삼포경영활동과 연계시켜 고려할 것을 주문하면서 조선 후기 개성상인의 자본 운영이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 그 성격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주장하여 주목된다(양정필 2008, 51-98).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비변사등록과 승정원일기 등 관찬사료에 주로 의존하여 민간 기업 활동으로서 산업자본의 실체를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행 연구의 주장대로 개성상인들이 삼포경영에 투자한 자본의 성격을 산업 자본적 성격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상거래의 매매 차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 다량의 자본을 투하하고 타인 노동을 고용하여야 하며 전 제조과정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의 원가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국내 회계사학계에서 발굴한 조선 후기 박영진가의 삼포경영관련 회계장부를 분석하여 조선 후기 개성상인은 삼포경영에 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기초로 삼포경영을 수행하여 인삼 제조과정의 정확한 원가 계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실증하는 연구이다. 박영진가 회계장부가 회계사학에 차지하는 의의는 일기장에서 손익계산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 기입을 추적할 수 있는 접합된(articulated) 장부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외상장책과 타급장책의 기록에는 인삼의 제조과정²⁾에서만 존재하는 고유한 재료비 계정들 예를 들어 人蔘種子, 벼 이앙을 위한 秧苗와 같은 種蔘, 삼포 조성에 필수적인 簾, 芎索등의 재료비와 拾虫役, 結間役, 看腦役, 加土役, 加簾役, 除草役, 草結役등 숙련노동비용 그리고 日雇등 비숙련 노동에 관련된 노무비 계정이 존재하여 타인노동을 고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산업자본 고유의 성격이 잘 들어나고 있다.

인삼 제품의 제조과정의 특성상 2년근에서 6년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투자 기간을 요하며 같은 삼포에서 채삼한 제품이라도 뿌리의 상태에 따라 가치가 여러 등급으로 구분되는 이유로 오늘날 제품제조원가명세서와 같은 세밀한 생산과정 정보의 체계적 기록 없이는 판매활동에서의 수익 창출과 합리적인 이윤 배당이 쉽지 않은 이유로 판매활동 직전까지의 모든 제품의 생산과정상의 단가가 매우 치밀하게 기재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박영진가 회계장부의 일기책과 총계정원장(외상장책·타급장책)의 삼포 경영관련 제조원가에 투입된 거래 기입을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먼저 직접원가와 제조 간접원가로 구성되는 제조원가까지를 범위로 하는 일 단계 연구와 판매비와 관리비를 포함한 판매가격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2) 본 논문에서는 제조업 생산 시스템하의 제품 제조과정은 아니지만 인삼의 경작과정은 이미 다량의 자본이 투하되어 조성한 삼포라는 가공된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제조관련 재료와 노동을 투입하므로 제조과정이라고 표현하였다.

이 단계 연구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본 연구는 일 단계 연구로서 삼포 조성에서 최종 판매 직전까지 삼포별로 투입된 재료의 단가를 계산하고 노동 분업별로 투입된 노동량과 그 단가 계산 방법을 제시하여 막스베버가 근대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제시한 엄격한 계산에 토대를 둔 합리주의 경영의 실체로서 개성상인의 삼포 경영이 존 재함을 실증하려고 한다.³⁾

II. 삼포 경영 비용 관련 일기장 기입(Entry)과 분개(Journalizing)의 특징

박영진가 회계장부의 특징은 일기장과 외상장책/타급장책(총계정원장) 그리고 周會計冊(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 동시에 보존되어 있어 일기장 기입의 거래를 최종 주회계책까지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접합된 회계장부의 장점을 활용하여 지금까지 개성상인 연구의 공백 부분인 삼포 경영의 제조원가 계산과정을 구명할 수 있다. 먼저 박영진가 일기장 보존 상태와 삼포 경영관련 거래가 일기장에 어떻게 기입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자.

〈표 1〉은 총 7권으로 구성된 박영진가 일기장 가운데 삼포도중인 ‘薛箕東’과 연관된 거래의 일기장별 거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정리한 것이다. 〈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박영진가의 일기장 총 7권은 1887년 8월 15일 개시기입이 시작된 이래 1912년 4월 15일까지 총 26년간 발생한 거래가 기입되어 있다. 이 가운데 삼포 경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래 기록은 일기장 2권 ‘薛箕東’ 인명으로 기입된 1896. 09. 13일 기록이 첫 기입이다. 이 기록 이전에 일기장 1권의 시작년도인 1887년부터 1896년까지 9년간 거래 기입에는 삼포 경영 관련 거래 기입은 존재하지 않고 금융 관련 거래 기입에서 간헐적으로 삼포 경영을 위해 자금이 오고 간 기입만 등장한다. 예를

3) 쾰프리트와 함께 독일 근대학과의 중심에 위치한 막스 베버는 재산을 유용한 일에 사용하는 것은 신의 축복으로 아름다운 미덕의 유용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복식부기에 기초한 합리적인 계산에 의한 영리추구 행위는 동양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양에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유럽중심사관의 초석을 놓은 바 있다(Weber 1927, 1951; Sombart, Werner 1919; Munich: Humblot and Duncker 1980, 1340-1355). 박영진가 회계장부는 이러한 유럽중심사관의 초석이 잘못 놓여진 것을 증거하는 귀중한 사료이다. 이 자료가 한국학 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 수집의 대상이 된 것은 2006년이다. 자료의 귀중함으로 인해 원본 보다는 먼저 연구용으로 일부 복사본이 제공되었다. 복사본 자료를 가지고 2007년부터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국가경영연구소의 주관으로 연구가 개시되어 탈초 작업과 엑셀 입력 작업이 진행되었고 2011년 3월에 장부 구조를 중심으로 회계장부조직의 특성을 검출하여 학계에 보고한 바 있다. 이 자료가 한국회계사학계에서 차지하는 의의에 대해서는 정기숙(2011, 114-174)에 자세하다.

〈표 1〉 薛箕東 蔘圃都中 관련 박영진가 일기장 거래 기입수

	일기장 1	일기장 2	일기장 3	일기장 4	일기장 5	일기장 6	일기장 7	
개시기입날짜 (a)	1887. 08.15	1894. 04.26	1898. 09.15	1901. 04.10	1903. 10.05	1905. 02.24	1906. 11.16	
마감기입날짜 (b)	1894. 04.26	1898. 09.15	1901. 04.09	1903. 10.04	1905. 02.24	1906. 11.06	1912. 04.15	
면수	116	116	116	116	116	116	118	
기입수(c)	2,041	2,213/ 1083	2,388	2,228	2,464	2,479	2,364	
薛箕東 蔘圃都中 관련 거래	a	NA	1896.09.13	1898. 09.16	1901. 04.10	1903. 10.06	NA	NA
	b	NA	1898.09.13	1901. 04.09	1903. 10.03	1904. 10.30	NA	NA
	c	NA	411 (18.6%/ 38%)	535 (22.4%)	428 (19.2%)	122 (5%)	NA	NA

주 : a; 개시기입날짜, b; 마감기입날짜, c; 기입 수.

들면 일기장 1의 1887년 12월 6일 吳光彦이 삼포용조로 빌려간 돈 100냥이란 거래로 해석되는 ‘十二月初六日 吳光彦貸去圃用條文一百兩下’ 기입과 같은 금융 거래가 간혹 보인다. 그러다가 1896. 09. 13일 이후부터 삼포 경영 관련 거래 기입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날 이후부터 일기장에 기입되기 시작한 薛箕東 蔘圃都中 삼포경영 관련 거래의 기입 수는 일기장 2권 전체 기입 건수 2,213건의 총 18.6%를 차지하며 일기장 2권의 1896년 9월 13일 이후 1,083건수의 총 38%를 차지한다. 1898. 09. 15~1901. 04. 09 기간의 기입인 일기장 3권의 경우 총 거래 기입수 2,388건에서 薛箕東 蔘圃都中 관련 거래는 535건으로 22.4%를 차지한다. 1901. 04. 10~ 1903. 10. 04 기간인 일기장 4권에서는 19.2% 비중의 빈도로 기입되어 있다. 일기장뿐만 아니라 다음 장에서 살펴볼 외상장책에 독립된 계정과목 기입 수에서도 단일 계정으로서 薛箕東 蔘圃都中 계정과목 거래 기입 수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1903년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일기장 5권에서부터 설기동 도중 관련 거래 기입이 갑자기 줄어든다. 일기장 4권까지 총 거래 기입 건수 대비 약 20% 내외의 거래 기입 비중이 일기장 5권에서 갑자기 5%대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기장 4권 1903년 9월 15일 이후 설기동 관련 거래 기입의 적요란은 삼포 경영과 무관한 포목 매매와 같은 다른 영업활동으로 변경되어 있다.⁴⁾

4) 박영진가 기업 경영 성과를 금융업 관련 성과와 인삼제조업 관련 성과로 분류하여 최종 성과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비용 분석에 집중한다.

이상 박영진가 일기장 총 7권의 거래 기입 가운데 삼포경영 관련 거래 기입의 일기장별 분포를 근거로 박영진가의 삼포경영 활동기간을 추적하면 1896년 9월 13일 시작되어 1903년 9월 15일까지 약 7년간이 직접적 인삼제조를 위한 삼포경영기간이다. 인삼제조 활동기 전후 시기인 1887년 8월 15일에서 1896년 9월 13일까지 약 9년간 그리고 1903년 9월 15일에서 1912년 4월 15일까지 약 8년간 삼포 경영 활동은 멈추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삼포 경영 활동기 7년과 활동기 이전 8년과 활동기 이후 휴업기 9년의 경영 활동 사이클은 6년근 인삼 제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별도의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삼포 경영활동 7년에 해당되는 1896년 9월 13일부터 1903년 9월 15일까지 인삼 제조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그림 1〉은 〈표 1〉에서 살펴보았듯이 일기장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나는 薛箕東이란 삼포도중 관련 거래기입이 일기장과 외상장책 그리고 주회계책에 각각 어떻게 분개(Journalizing)·전기(Posting)·요약(Summation)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사례로서 제시한 것이다.⁵⁾ 본 연구에서 복식부기 시스템의 3단계 접합 사례로서 〈그림 1〉을 제시한 이유는 오늘날 제조 기업 원가 회계의 목적과도 부합하는 삼포 경영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생성과정을 잘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오늘날 제조 기업의 원가회계는 제조과정상에 투입되는 재료비와 노무비는 자산 계정임과 동시에 원가요소 계정으로 분개하여 원장의 자산 계정으로 전기하고 대차대조표상의 결산 잔액으로 요약하게 된다. 박영진가의 삼포 경영에 관련된 거래의 회계처리도 현대 제조 기업 원가 회계 원리 그대로 분개되어 원장의 자산 계정(外上長冊)으로 전기되고 궁극적으로 개성상인의 대차대조표라 할 수 있는 주회계책의 봉차질(자산) 잔액으로 요약되어 있다.

먼저 〈그림 1〉의 일기장의 분개기입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에서 〈표 1〉에 제시된 대로 薛箕東 삼포도중의 첫 거래인 1896년 9월 13일자의 거래를 제시하지 않고 1897년 3월 12일자의 일기장 분개 기입을 제시한 이유는 외상장책에 설기동 계정하의 첫 기입 날짜가 1897년 3월 12일자의 거래이기 때문이며 박영진가의 주회계책의 첫 페이지 시작이 1897년 9월 15일자로 결산된 周會計 기록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⁶⁾(〈그림 3〉 참조).

5) 삼포 경영 관련 거래가 복식부기 시스템대로 3단계(분개-전기-대차잔액요약) 단계로 정리되는 과정의 사례로서 일기장에서 어떻게 분개되어 있으며 외상장책의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어 전기되었는가를 추적하고 다시 또 이 독립된 계정과목의 차변-대변의 집계 잔액이 최종 주회계책으로 요약되었는가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6) 1897년 3월 12일 일자로 시작되는 설기동 계정과목의 외상장책의 차변 잔액이 1897년 9월 15일자의 주회계책의 ‘擡次秩’에 요약되어 외상장책과 주회계책 상호간의 접합상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의 일기장 사례에서 1897년 3월 12일 날짜에 발생한 삼포 경영 관련 거래의 기입은 총 12건수가 ‘薛箕東’이란 인명으로 시작되고 있다. 12건의 기입중 ①, ②, ⑤, ⑦, ⑧, ⑨의 기입은 ‘入-上’이란 분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머지 ③, ④, ⑥, ⑩, ⑪은 ‘捧次-下’란 분개 구조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⁷⁾. 송도치부법의 분개 구조의 특징은 일기장에서 현금출납과 거래 분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인데 박영진가 일기장에서도 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⁸⁾

일기장에서 삼포 조성과 경작과정 그리고 채삼하기까지 지출된 모든 거래의 기입은 ‘捧次-下’란 분개 구조를 갖는다. 특히 다른 금융 거래나 매매활동의 거래 기입과 달리 ‘牛峴密種田’, ‘樂村圃’와 같은 삼포명의 기입과 삼포 규모의 기본 단위인 ‘間數’가 해당 비용마다 기입되어 ‘間’별 재료비의 단가를 정치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원가회계에서 판매활동 직전의 제품별 부문별 제조부문을 분류하여 그 원가를 기록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이유에서 ‘間’별 재료비 투입을 기록한 것으로 사료된다.

노무비 관련 용어도 ‘役’과 ‘日雇’로 구분하여 제조과정상의 특수 전문직 노무비인 경우 ‘役’으로 일반 단순직인 경우 ‘雇’로 표현하여 그 단가의 차이를 계산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는 현대 회계에서 제조 기업회계의 기초로서 원가의 일반적 정의대로 설기동 삼포도중 관련 거래는 인삼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재화(種蔘, 簾, 苧索)와 용역(拾虫役, 結間役, 看腦役, 加土役, 加簾役, 除草役, 草結役)등의 경제적 자원의 희생의 화폐금액의 표시인 것이다. 따라서 이 거래들을 재료와 노동력, 그리고 기타 용역별로 분류하고 그 단위당 가격을 계산하면 인삼 제조 원가의 흐름도를 작성할 수 있다.⁹⁾

요약하자면 박영진가 삼포경영 관련 거래는 1896년 9월 13일 시작되어 1903년 9월 15일까지 약 7년간 집중되어 있고 삼포 조성에서 인삼 제조까지 관련된 일기장의 거래의 분개 구조가 ‘捧次-下’로 통일되어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시기에 삼포 경영 관련 거래가 집중되어 있고 이 거래의 분개 구조가 오늘날 제조 기업 회계의 고유 계정인 재료 계정, 임금계정, 제조경비계정등 자산 계정으로 관련 거래 발생액

7) 일기장에서 삼포 경영 관련 거래 가운데 ‘入-上’이란 분개 구조를 가지는 거래 기입은 인삼 제품 판매과정에 해당되는 거래가 대부분으로 타급장책으로 전기가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삼포조성과 인삼 생산활동을 중심으로 인삼 제조 원가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서 인삼 판매 활동에 관한 거래 기입은 삼포 경영의 수익구조 분석이란 주제로 다음 후속 연구로 진행할 예정이다.

8) 박영진가 회계장부 전체의 구조와 일기장 원장별 기입의 특징에 대해서는 정기숙, 「사개송도치부법의 기장원리와 장부조직에 관한 연구-박영진가의 장부(1887년 8월 15일~1893년 9월 15일)를 중심으로」 149-150 참조.

9) 삼포별 제조비 투입 거래 기입에 대해서 다음 장 원장으로의 전기의 특성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이 재공품 계정 차변잔액을 증가시키는 원리와 동일한 원리의 분개 구조를 갖는 것은 삼포 경영의 산업 자본적 특성이 일기장에서 시험된 것을 의미한다.¹⁰⁾

Ⅲ. 삼포 경영 비용 관련 외상장책 전기(Posting)의 특징

〈그림 1〉의 가운데 부분의 외상장책 사례는 일기장 기입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捧次-下’란 분개 구조를 가진 일기장의 기입들이 외상장책의 설기동이란 계정과목에 어떻게 전기(Posting)되어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일기장에 기입된 거래는 크게 금전 대차 거래(금융거래)와 제품 구매 및 판매 거래(상업거래) 그리고 삼포 경영 관련 거래(제조활동거래)로 분류할 수 있다. 모든 거래의 일기장 기입은 거래 발생순서대로 기입되어 있어서 금전 대차관계 거래의 경우 은행 회계처럼 인명별로 거래처를 분류하여 거래 발생순서대로 일기장의 기입을 전기하면 된다. 상거래 관련 기입도 마찬가지로 거래처별로 혹은 제품 별로 계정을 설정하고 일기장 기입을 발생순서대로 전기하면 된다.

그러나 삼포 경영 관련 거래(제조활동거래) 일기장 기입의 원장으로서의 전기(Posting)는 다르다. 삼포 경영의 경우 설기동이란 인명 계정의 틀 안에서 다시 삼포별 분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기장의 거래발생일 순서는 사라진다. 삼포별 분류 내에서 거래 발생일자별로 순서대로 기입할 수 있으나 삼포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기장의 거래발생일 기입 순서가 서로 뒤섞이게 된다. 박영진가에 외상장책의 다른 계정 과목들은 같은 계정과목인 경우 일기장 순서대로 거래 발생일자별로 전기되어 있으나 삼포 경영 관련 기입은 일기장의 질서가 없어지고 삼포별로 혹은 재료별로 혹은 노무비별로 전기되는 새로운 질서를 갖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 새로운 질서는 삼포 경영 원가 계산에서 개별 삼포별로 원가가 계산된 것을 의미하며 오늘날 회계방식에 비추어 볼 때 개별원가계산(Job Order Costing)을 채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표 2〉는 삼포 경영 관련 거래의 외상장책으로 전기되는 새로운 질서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 외상장책의 설기동이란 계정과목하의 개별 삼포 계정 8가지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2〉에서 삼포 경영 관련 거래 기입은 설기동이란 같은 계정과목이라 하더라도 일기장의 거래발생일자의 순서가 없어지고 삼포별로 혹은 재료/노무비별로 전기(Posting)가 이루어져 금전 대차관계 거래의 전기나 상거래 관계의 전기

10) 박영진가 일기장의 삼포 경영 관련 거래 기입의 분개 구조는 제조 기업 고유의 계정으로서는 재공품 계정의 분개가 차변에는 재료의 매입을 기입하고 대변에는 재료의 사용을 기입하여 노무비의 경우 (차) 재공품 *** (대) 임금 ***로 분개되는 현대 재공품 관련 분개 구조와 동일한 원리이다.

〈표 2〉 인삼 제조 개별원가계산(Job Order Costing)과정 관련 일기장 분개 기입의
외상장책으로의 삼포별 전기(Posting)

	삼포명	외상장책					개시기입일자 일기장 적요 및 분개용어	외상장책 개시기입적요	
		차변			대변				
		최초기입일자	최종기입일자	기입 건수	최초	최종			건수
①	種蔘	1896.09.13	1897.03.12	19	1896.09.13	1896.03.12	18	捧次種蔘二百 十間84式二十 日錢魯得權給 文--下	金時幹家在種 蔘二百十間84 式廿日錢文
②	藥村圃	1896.09.20	1897.03.02	15	1896.10.24	1897.04.16	3	捧次藥村田七 合耕日雇4十除 草役十一名一 雇44文--下	藥村田七合耕 ■雇4十除草役 十一名雇44文
③	存以洞圃	1896.09.28	1897.09.10	18	NA	NA		捧次存以洞田 一日耕丁戊己 三年稅金日德 給文	存以洞田一百 耕丁戊己三年 歲金日德給文
④	石壁洞	1896.10.03	1898.01.09	29	NA	NA		捧次石壁洞田 一日耕丁戊己 三年稅合給文	石壁洞田一日 耕丁戊己三年 稅金給文
⑤	德男洞密 種圃	1897.02.07	1898.03.19	25	NA	NA		捧次密種圃前 後柱三百五十 介價三5草索二 百十七沙里88 錢文	德男洞密種圃 前後柱三百五 十介價三5草索 二百十七沙里 88錢文
⑥	樂村密種 圃	1897.03.12	1898.03.19	32	1898.03.19	1898.03.19	6	捧次八百上細 根三百三十次 115式文	樂村密種圃八 百上細根三百 三十次1-5式 文
⑦	存以洞圃	1897.03.12	1898.03.19	21	NA	NA		捧次存以洞密 圃耕雇十兩鋤 雇一8種菜役 又兩簾朔又兩 葛饒次8式文	存以洞密種圃 耕雇鋤雇簾朔 合文
⑧	牛峴圃	1897.03.12	1898.03.25	25	NA	NA		捧次牛峴密種 田二合半耕雇 三十簾1百間 價?1百文	牛峴密種圃田 二合半耕雇三 十簾1百間價1 百文

와 다른 개별원가계산(Job Order Costing)의 독특한 성격을 볼 수 있다.¹¹⁾

〈표 2〉는 〈표 1〉의 일기장 별로 인삼경작과정에 투입된 비용이 원장 상에 각 삼포별로 재분류되어 전기된 사실을 잘 보여 준다. 〈표 2〉의 삼포별로 재분류된 계정 기입을 기초로 〈그림 2〉와 같이 박영진가 삼포 경영의 삼포별 제조 원가 흐름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현대 제조기업 회계에서 제조 원가 요소는 제조 부문별로 개별 원가계산을 하는 원가 계산 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표 2〉의 계정 ①을 살펴보자. 계정 ①은 1896. 09. 13일에서 1897. 03. 12까지 주로 ‘種蔘’과 관련된 거래가 모인 계정으로서 삼포 구성과 조성된 삼포에 중삼을 배치하는 흐름을 제공한다. 삼포 경영을 위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이 種蔘이기 때문에 가장 처음의 계정으로 배치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②~⑧은 ①에서 확보한 ‘種蔘’을 옮겨 심을 삼포로서 ‘樂村圃’, ‘存以洞圃’, ‘石壁洞圃’, ‘德男洞圃’, ‘牛峴圃’를 조성하고 각 삼포별로 경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경작과정별로 얼마만큼 투입되었는가를 기록한 계정들이다. 이 가운데에서 계정 ②와 계정 ⑥은 樂村圃 경영이 서로 이어지는 계정이다. 계정 ②의 1896. 09. 20에서 1897. 03. 02일 기간은 가을과 겨울동안 계정 ①에서 확보한 ‘種蔘’을 심을 삼포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투입된 제반 재화와 용역 관련 거래가 기입되어 있다. 이어서 계정 ⑥은 1897. 03. 12에서 1898. 03. 19일까지 봄에 출발하여 다음 해 봄까지 일년여 기간 동안 지난 해 가을과 겨울에 이미 조성해 놓은 삼포에 ‘簾’, ‘植蔘’, ‘除草’, ‘加土’, ‘藥土’등의 인삼 경작 과정상에 소요되는 제반 재료 및 노동력에 관한 비용 투입의 흐름이 잘 나타나 있다. 결국 인삼 제조에 필요한 제조 원가는 계정 ①에서 확보한 ‘種蔘’에서 출발하여 삼포 기반 조성인 계정 ②와 경작 과정인 계정 ⑥으로 이어지는 흐름대로 〈그림 2〉에 제시된 것처럼 박영진가 삼포 경영활동 내의 개별원가계산(Job Order Costing)의 흐름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11) 박영진가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자료를 제공하였다. 연구용으로 제공된 자료는 원본 그대로가 아닌 일부만을 복사한 것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삼포 경영 관련 보조 장부가 따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가 수행된 후에 다시 박영진가에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요청해야 하는 사정에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거래발생일자별로 기입된 일기장 기입이 외상정책과 타급 정책으로의 전기될 때에 다른 거래는 계정과목(거래처)별로 분류되어 같은 계정과목 내에서 거래 발생일자별로 순서대로 기입되어 있지만 삼포 경영 관련 거래의 경우 같은 계정과목 내에서 다시 삼포별로 분류되어 거래발생일자와 상관없이 해당 삼포에 소요된 투입 자본별로 기입되어 있는 차이이다. 금전 대차관계와 상품 매매관계 거래의 경우 일기장 기입을 관련 거래 거래처(계정과목)별로 거래발생일자를 순위로 정렬하면 그대로 원장기입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삼포 경영 관련 거래는 일기장 기입을 같은 방법으로 정렬해도 원장 전기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그림 2〉 박영진가 삼포 경영활동 내의 개별원가계산(Job Order Costing) 및 제조과정 흐름도

種蔘取得活動(〈표 2〉 계정 ①) → 蔘圃造成活動(〈표 2〉 계정②, 계정③) → 蔘圃耕作活動(〈표 2〉 계정④, ⑤, ⑥, ⑦, ⑧) → 人蔘收穫 및 販賣活動¹²⁾ → 決算 및 利潤配分活動(〈그림 1〉의 周會計冊 사례)

특히 본 논문 제 4장에서 살펴볼 내용인 결산과정과 연관된 기입이 계정 ⑥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계정 ⑥의 기입 기간인 1897. 03. 12에서 1898. 03. 19일 기간 사이에는 1897. 09. 15일 결산이라는 설기동 삼포 도중 관련 첫 周會計 결산 기록이 나오는 시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림 1〉의 주회계책 사례를 살펴보면 이 날짜와 접합된 기록으로 捧次秩 10번째 기입에 ‘薛箕東捧次樂村密種圃座文四萬二千八百九十五兩四錢五分’이라는 ‘捧次’ 계정 잔액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마찬가지로 〈그림 1〉의 외상장책 사례란을 보면 1898. 09. 12~1898. 09. 21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특수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分收松役二名文八兩⑫||0欠¹³⁾×0¹⁴⁾欠¹⁴⁾×8分¹⁴⁾九月廿一日除草加土役文四十一兩’. 외상장책의 특수 수치 표시와 주회계책의 설기동 봉차 잔액 사이의 연관이 바로 외상장책과 주회계책과의 접합과 관련된 특수 수치이다. 이 연관에 대해서는 다음 장인 ‘주회계책으로 요약의 특징’ 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그림 3〉 참조).

다음으로 개별원가계산(Job Order Costing) 흐름도 내에서 제조 원가 계산은 각각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자. 앞서 언급하였듯이 계정 ⑥ 樂村密種圃의 기입 기간은 3월에 시작되어 다음 해 3월까지 기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른 삼포도 같은 기간 시작되는 계정들은 모두 인삼 경작에 관한 직접적인 거래 기입들이다. 〈표 2〉의 계정 ⑤ 德男洞密種圃, 계정 ⑥ 樂村密種圃, 계정 ⑦ 存以洞圃, 계정 ⑧ 牛峴圃의 거래 기입 모두 1897년 봄부터 개시기입이 시작되어 1898년 봄까지 1년 단위로 계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인삼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단가 계산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표 2〉의 계정 ①의 ‘種蔘’의 단가이다. 〈표 2〉의 계정 ①을 보면 외상장책 개시기입

12) 본 논문에서 집중하고 있는 원가계산 구조 분석 다음으로 수익구조 분석에서 다룰 예정이다.

13) 박영진가 周會計冊 본문의 13면 봉차질 10번째 기입(〈그림 3〉 참조).

14) 박영진가 회계장부의 모든 계산식은 이 호산 표시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李相國(1988), 杉本德英(1998, 77)을, 유럽 중동 인도에서 아라비아 숫자 사용과 상인들의 회계 기록에 대해서는 M. E. Mallett(1967, 86-7), J. Needham(1959), D. E. Smith and L. Karpinski(1911)을 참조하기 바란다.

〈표 3〉 〈그림 1〉의 외상장책 사례의 현대 계정 형태인 T-Form으로 전환한 경우

날짜	적요	금액	재료/노무	수량 (재료단위)	단가 (兩·錢分)
1897. 03. 12	樂村密種圃八百上細根三百三十次1-5式文	37950,00	上細根	330(次)	115,00
1897. 03. 12	次細根十三次57式文	741,00	次細根	13(次)	57,00
1897. 03. 12	植蓼役合文	878,85	植蓼役		
1897. 03. 12	簾卜日雇耕雇合文	46,00			
1897. 03. 18	草索價45×8水道鍤雇三名一二十六兩五錢文	16,50	水道鍤雇 ¹⁸⁾	3(名)	4,00
1897. 03. 24	上直十七日雇三8錢長木運雇5兩文	40,70	日雇=35,70 運雇=5,00	17(日) 1(名)	2,10 5,00
1897. 03. 26	結間役文	600,00	結間役		
1897. 04. 03	拾蟲雇合文	100,00	拾蟲雇		
1897. 04. 16	加土役十二名48加簾先給15三太三十介二十文	219,00	加土役	12(名)	4
1897. 04. 21	松加簾畢給文	11,50			
1897. 05. 02	除草役七名雇文	17,50	除草役	7(名)	2,43
1897. 05. 06	石魚價文	17,00			
1897. 05. 21	蓼卜價條文	17,90			
1897. 05. 26	除草十一名文	30,50	除草役	11(名)	2,77
1897. 06. 13	青葛一隻文	15,00	青葛	1(隻)	15,0
1897. 07. 03	除草役十二名文	37,50	除草役	12(名)	3,15
1897. 07. 21	告事酒肉價文	25,00			
1897. 08. 06	除草役十一名文	27,50	除草役	11(名)	2,5
1897. 08. 06	收松役二名文	8,00	收松役	2(名)	4,0
1897. 09. 21	除草加土役文	41,00			
1897. 11. 22	簾一百三十間價文	100,00	簾	130(間)	0,77
1897. 11. 30	籬薪五駄文	40,00	籬薪	5(駄)	8,00
1897. 12. 04	草索一百五十沙里文	5,35	草索	150(沙里)	0,03567
1897. 12. 15	青葛一駄文	37,20	青葛	1(駄)	37,2
1897. 12. 24	田稅文	200,00			
1898. 01. 06	簾七十二間文	60,00	簾	72(間)	0,8333
1898. 03. 03	四處上直燭油價文	13,50			
1898. 03. 19	上直朔6十籬役二十文	80,00	上直	朔(30日)	60,00
1898. 03. 19	上片丙申九月廿日一字座移來文	2196,00			
1898. 03. 19	本合文	43572,50			
1898. 03. 19	戊戌三月至邊15式合文	8648,87			
1898. 03. 19	本邊合文	52221,37			

1896.09.13일의 해당 날짜 일기장 기입의 거래 적요와 외상장책으로 전기된 거래 적요와 비교할 때 서로 다른 내용이 나온다. 일기장의 거래 적요는 ‘薛箕東捧次種蔘二百十間三×式廿日錢魯得權給文一萬七千六百四十兩下’로 되어 있으나 외상장책은 ‘金時幹家在種蔘二百十間三×(84)式廿日錢文一萬七千六百四十兩’으로 되어 있다.¹⁵⁾ 이 거래를 해석하자면 1896. 09. 13일 박영진가는 설기동이 맡아서 관리하는 삼포를 위해서 魯得權이 지급해야하는 어음 17,640냥으로 種蔘이 심어져 있는 金時幹家 種蔘圃 240間을 칸당 단가 三×(84)냥으로 계산하여 미리 구입한 것으로 해석된다.¹⁶⁾ ‘種蔘’은 인삼 제조 과정상 가장 중요한 재료인 이유로 거래 흥정 수수료라는 또 다른 비용을 수반하고 있다. 1896년 9월 13일 다음 날짜의 거래는 1896년 9월 15일 거래로 ‘十五日 蔘口先給文二百九十兩下’라고 기입되어 있다. 이 기입은 일종의 種蔘 거래비용으로 9월 13일 種蔘 거래의 흥정 수수료로 290냥을 지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 9월 13일 거래와 함께 요약하자면 박영진가는 삼포 경영을 위해서 삼포 경작 6개월 전에 미리 종삼포 210칸을 칸당 84냥, 총액 17,640냥으로 구입하여 놓고 이 종삼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인에게 수수료로 295냥을 지급한 것이다. 박영진가 회계장부는 인삼 제조에 소요되는 원가 계산의 첫 출발에 종삼 거래와 그 단가 그리고 흥정 수수료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¹⁷⁾

그러면 인삼 경작에 직접 투입되는 재료와 노무비의 단가 계산은 어떻게 기록해 놓았는가? 이를 위해서 <그림 1>의 외상장책 사례를 <표 3>와 같이 현대 계정 형태인 T-Form으로 전환하여 각 기입별로 제시된 단가 계산 구조를 살펴보자. <표 3>은 1897. 03. 12일에서 1898. 03. 19일까지 1년 동안 삼포 경작에 직접 투입된 재료와 인건비를 모아 놓은 계정 ⑥을 T-Form으로 형태 전환한 것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삼포 조성과 경작에 투입된 재료와 노동력 거래가 거의 대부분 단가 표시와 함께 거래 규모를 기입하고 있어서 박영진가 삼포 경영은 제조 기업으로서 원가 계산을 세밀히 수행한 것을 알 수 있다.

15) 외상장책에는 노득권이란 어음 발행인의 이름이 빠지고 대신 ‘種蔘’을 보유한 집으로 사료되는 金時幹이란 인명이 기재되어 있다. 1896년 9월 13일 거래 시점에 ‘種蔘’은 ‘金時幹’이 소유한 種蔘圃에 있고 이 때 구입해놓은 ‘種蔘’은 1897년 봄인 3월부터 설기동이 관리하는 삼포로 이전하여 심기 시작한다. 삼포 경영 관련 거래 사항을 가지고 송도치부법의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경제사학자인 본인의 한계로 한국회계학계의 연구를 기대한다.

16) ‘種蔘’ 단가는 그 단위가 삼포 단위인 ‘間’으로 계산되어 있다(210間*84兩式).

17) 종삼 거래 흥정 수수료율은 1.643%로 당시 일반 다른 거래 수수료율 수준인 1%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지불한 것을 알 수 있다.

18) $12+4.5\text{냥} = 16.5$

IV. 삼포 경영 비용 관련 잔액 요약(Summa)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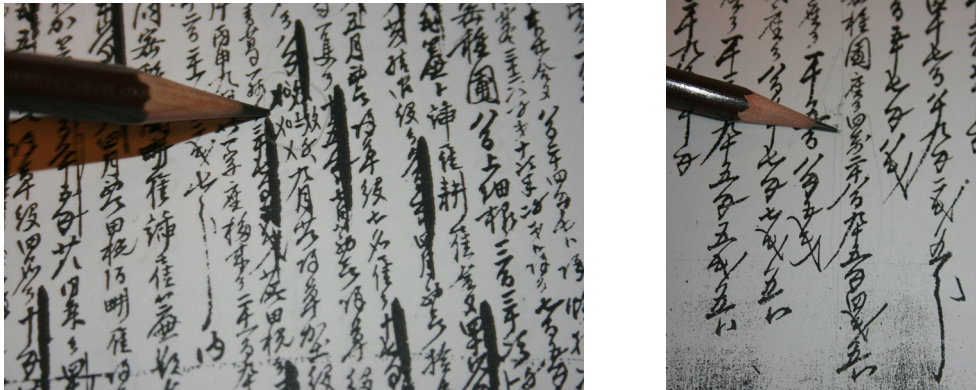
제 I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외상장책으로 전기된 인삼 제조 비용들은 1년 단위로 자산계정의 잔액으로 요약되어 오늘날 현대 회계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는 周會計冊에 집계되어 있다. 이는 삼포별로 투입된 원가가 해당 삼포에서 인삼을 수확하여 판매할 때까지 재공품(work in process)라는 재고자산계정으로 기록되어 1년 주기로 결산한 잔액이 계산된 것을 의미한다. 삼포 경영 관련 일기장 기입이 원장으로 전기되는 과정에서 삼포 별로 혹은 재료별/노무비별로 전기되는 특징은 주회계책으로 기말 잔액이 요약되는 과정에까지 그 특징이 지속된다. 제 III장에서 박영진가 총계정 원장의 일부인 외상장책의 설기동 삼포 도중 계정은 삼포별로 다시 분류되어 인삼 경작 주기에 따라 매년 봄에 시작되어 다음 해 봄에 마감되는 원가 계산 기간이 1년 단위로 되는 특징을 제시한 바 있다. 박영진가 회계장부의 특징은 이러한 원장 전기의 특징 다음으로 인삼 경작 과정이 중심된 삼포 별 원장 계정이 매년 봄에 개시 기입이 시작되고 다음 해 봄에 마감되는 것과 주회계책의 결산기일이 매년 9월 15일인 것과 차이가 나는 특징이 또 하나 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식민지 시기 개성지방 지방지인 고려시보에 따르면 개성상인들은 년 2회의 결산기를 두었다. 음력 3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8월부터 익년 2월까지 하반기로 분기하여 상반기의 마지막인 7월말과 하반기의 마지막인 2월말에 채권(捧次 : 받을 것)과 채무(給次 : 줄 것) 사이의 결제행위를 하고 그 이후로 다시 새로 거래를 시작하는 관행에 따라 이자율의 계절 변동이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박재청 1933b). 결제기일은 7월말과 2월말로 특정 월, 특정일에 몰려 있고 월별로 자금 시장 상황에 변동하여 이자율도 서로 다르게 결정된다는 것이다(박재청 1933a).

조선식산은행 조사보고에서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이자율이 상반기에 하락하고 하반기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7월말에서 2월말까지 하반기의 이자율은 월 1.25%에서 1.5%로 가장 높은 이자율 수준이며 특히 9월과 10월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달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 상반기는 1%~1.25% 수준으로 내려가고 특히 1월과 5월, 6월, 7월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長尾崎俊 1929; 金孝東譯 1973). 따라서 삼포 경작 기간과 결산기간의 차이는 금융 관련 행위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만 그 해답이 나오는 별도의 연구 주제이다.

본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삼포 경영 관련 거래의 외상장책 기록과 주회계책 기록의 접합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최종 주회계책으로 잔액이 요약되는 특징을 살핀다. <그림 1>의 주회계책 사례는 1897년 9월 15일 10周 회계기록이다. 이 기록 중 捧次

〈그림 3〉 “〈그림 1〉 외상장책(총계정원장)과 주회계책(대차대조표)의 접합부분”



주) 110ㄴ⁺(2,096)과 X0⁺ㄴ⁺X8分(40,799.45), 그리고 “그 합계액 (42,895.45)”.

〈표 4〉 박영진가 주회계책 결산 요약표(1892. 09. 13~1911. 09. 15)

결산일	급차(대)봉차(차)대조표					회계짐착초(손익계산서)				
	계정 수	합계	수	합계	여문	수	합	수	합	여문
1892.09.13	12	103,216.40	10	104,634.48	1,418.08	4	16,280.62	5	14,862.54	1,418.08
1893.09.15	18	181,737.33	23	190,485.38	8,748.05	2	13,456.86	2	4,708.81	8,748.05
1894.09.15	22	113,453.35	27	118,686.57	5,233.22	2	11,933.22	1	6,700.00	5,233.22
1895.09.15	21	110,298.93	18	114,394.41	4,095.48	3	18,200.09	1	14,104.61	4,095.48
1896.09.15	23	140,580.39	20	146,522.29	5,941.90	2	6,059.70	1	117.80	5,941.90
1897.09.15	33	271,523.17	35	267,538.95	-3,984.22	2	6,212.80	4	10,197.02	-3,984.22
1898.09.15	47	481,008.85	45	469,283.46	-11,725.39	2	1,031.53	3	12,756.92	-11,725.39
1899.09.15	41	446,320.33	37	448,958.76	2,638.43	8	50,445.10	9	47,806.67	2,638.43
1900.09.15	44	583,954.08	43	583,362.30	-591.78	4	23,602.37	1	24,194.15	-591.78
1901.09.15	44	565,709.47	55	568,208.30	2,498.83	3	53,569.44	4	51,070.61	2,498.83
1902.09.15	44	622,477.79	49	647,049.68	24,571.89	6	81,186.19	6	56,614.30	24,571.89
1903.09.15	46	788,516.07	50	810,697.58	22,181.51	6	60,736.92	1	38,555.41	22,181.51
1904.09.15	49	784,025.56	63	799,181.68	15,156.12	7	130,520.70	5	115,364.58	15,156.12
1905.09.15	52	963,774.26	81	947,192.63	-16,581.63	3	27,495.45	4	44,077.08	-16,581.63
1906.09.15	48	524,477.94	82	480,664.93	-43,813.01	3	11,626.28	4	55,439.29	-43,813.01
1907.09.15	41	570,263.98	57	583,753.71	13,489.73	4	64,093.50	4	50,603.77	13,489.73
1910.09.15	39	459,763.59	54	540,985.85	81,222.26	12	313,814.28	7	232,592.02	81,222.26
1911.09.15	38	478,655.12	45	636,635.25	157,980.13	7	251,365.64	12	93,385.51	157,980.13
	662		794			80		74		

秩 10번째 기입에 ‘薛箕東捧次樂村密種圃座文四萬二千八百九十五兩四錢五分’이라는 ‘捧次’ 계정 잔액은 외상장책의 1898. 09. 12~1898. 09. 21일 사이에 기재된 ⑫‘ $110 \text{ 欠} \text{ 十} \times 0 \text{ 十} \text{ 欠} \text{ 十} \times 8 \text{ 分}$ ’이란 호산 수치의 합계액과 일치한다($2096+40799.45 = 42895.45$). 호산 표기 수치 $110 \text{ 欠} \text{ 十}$ (2096)은 <표 2>의 계정 ②의 1896. 09. 20~1897. 03. 02 기간 동안 차변의 15건 기입의 합계 2,196냥에서 대변 3건 기입 합계 100냥을 뺀 차변 잔액이다. 다음 호산 표기 수치 $\times 0 \text{ 十} \text{ 欠} \text{ 十} \times 8 \text{ 分}$ (40799.45)은 <표 2>의 계정 ⑥의 1897. 03. 12~1897. 08. 06 기간의 차변 기입 19건의 액수 합계이다. 결론적으로 주회계책 설기동 계정 자산 잔액인 ‘薛箕東捧次樂村密種圃座文四萬二千八百九十五兩四錢五分(42895.45)은 1896. 09. 20~1897. 08. 06 기간 동안 삼포경영을 위하여 지출한 총 투자 금액의 차변 합계인 것이다(<그림 3> 참조).

<표 4>는 주회계책의 년도별 내용을 요약한 표이다. 박영진가에 보관된 주회계책은 1892년 9월 13일부터 1911년 9월 15일까지 총 20년간 매년 1년 주기로 18주년의 회계기간 결산 기록이 존재한다. 1892년 9월 5주기 회계결산에서 시작된 주회계 내용이 1908년 21주기와 1909년 22주기만 빠져있다. 1910년 개시기입에 “庚戌九月十五日二十三周會計”라고 기입되어 있고 <표 1>에 제시되어 있듯이 일기장 7의 34~80면까지 모두 1908년 1월 1일부터 1909년 12월 20일까지 거래가 빠짐없이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2개년 주회계 내용이 제책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사료된다.¹⁹⁾

‘薛箕東捧次樂村密種圃座文四萬二千八百九十五兩四錢五分(42895.45)은 <표 4>의 6번째 주회계 봉차질 계정 수 35의 잔액 합계인 267,538.95냥의 한 부분으로 이 해 결산에서 자산 계정 잔액 합계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표 4>의 주회계 결산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고찰한 일기장 분개 구조의 특징과 외상장책으로의 전기의 특징을 모두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박영진가는 1896년 9월 13일부터 1903년 9월 15일까지 7년간 삼포경영에 집중하였고 7년 중 초반 2년 삼포 경영 활동 개시기인 1897~1898년은 적자를 기록하다가 2년근이 출시되기 시작하는 1899년부터 흑자로 전환되고 다음 해 -591.78냥 규모의 소규모 적자를 기록하다가 1901부터 1904년까지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경영 성과를 이룩하였다.

V. 맺는 말 : 성과와 과제

지금까지 박영진가 설기동 삼포도종의 삼포 경영 관련 거래 기입을 가지고 일기

19) 박영진가에서 製冊된 장부를 복사해서 연구용으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제 1차 연구가 완료 되는대로 박영진가에 연구 결과를 보고하면서 원장부를 다시 열람할 예정이다.

장의 분개 구조와 원장으로의 전기 그리고 최종 주회계책으로의 요약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하여 개성상인들은 상거래뿐만 아니라 제조기업의 자본주의적 전문 경영 영역에서도 송도치부법을 활용하여 치밀한 원가 계산을 수행한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치밀한 원가 계산은 種蔘取得活動) → 蔘圃造成活動 → 蔘圃耕作活動 → 人蔘收穫 및 販賣活動 → 決算 및 利潤配分活動으로 이어지는 인삼 제조 공정 흐름 속에서 전체 과정의 단가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삼포 경영에 경영 노하우를 가지고 참가하거나 전문직 노동능력을 가지고 참가하거나 일고형태의 단순 노무직으로 참가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여한 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경영 성과를 나누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합리주의 문화의 정수로서 존재한다.

서양 회계사에서 원가 회계로 대표되는 재무회계는 상인회계의 역사처럼 15세기 루카파치올리에 기원하지 않고 19~20세기 기계제 생산의 산물로 인식한다. 따라서 원가 회계의 존재는 산업혁명의 산물로서 존재한다는 학설을 굳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영진가의 삼포경영 회계처리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서양회계사 중심의 학설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박영진가의 삼포 경영은 서양의 산업혁명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타인노동을 고용하고 생산활동에 투입된 비용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투입된 비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합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합리주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박영진가의 삼포경영 기록의 중심에는 원료와 노무비 등 재공품 계정이 중심이지 상품 판매와 구입과 같은 교환 거래가 중심에 있지 않은 것에서 산업자본적 성격을 찾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왜 개성상인들은 과학적으로 정교한 회계시스템을 인삼 삼포 경영에 활용하였는가? 20세기 독일의 쾰바르트(Werner Sombart)는 그의 저서 근대자본주의론(*Der moderne Kapitalismus*)에서 복식부기와 근대 자본주의와의 불가분의 관계를 천명하였다. 쾰바르트와 함께 독일근대학파를 이루는 막스 베버는 재산을 유용한 일에 사용하는 것은 신의 축복으로 아름다운 미덕의 유용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복식부기에 기초한 합리적인 계산에 의한 영리추구 행위는 동양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양에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본 논문에서 밝힌 박영진가 삼포경영 관련 거래 분석은 독일 근대학파의 지적대로라면 근대자본주의의 꽃으로서 손색이 없는 정교한 시스템이 동양의 조선후기에 이미 존재하는 셈이 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姜萬吉, 1972, “開城商人研究”, 「韓國史研究」, 8.
- 姜萬吉, 1973, 「朝鮮後記 商業資本의 發達」, 고려대출판부.
- 고동환, 2008, “조선 후기~한말 신용거래의 발달-어음과 환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13권 제2호.
- 고승희, 2005, “개성상인의 경영사상과 사계송도치부법의 논리구조”,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20집 제1호(통권 36).
- 김병하, 1993, “도중에 관한 연구 : 개성 선주전과 해주 선상전을 중심으로”,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8집(통권 8).
- 金孝東譯, 1973 “開城의 時邊”, 경희대학교부설 한국경제경영사연구소, 「韓國經濟史 文獻資料」, 제4집, 10월.
- 김성수, 2002, “개성상인 발달사 연구 : 개성상인의 상인 정신 연구”,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학」, 제17집 제2호(통권 29).
- 文定昌, 1963, “차인제도와 시변”,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제13권.
- 박광서·김명술, 2007, “국제무역거래상의 환어음에 관한 법적·실무적 고찰”, 「한국상법학회지」, 제29권 제1호.
- 박상규, 2003, “개성상인과 현대기업의 해외진출전략”, 「학술연구지원보고」, 태평양 장학문화재단.
- 박재청, 1933a, “시변소론” 4, 「고려시보」, 1933년 7월 16일.
- _____, 1933b, “시변소론” 5, 「고려시보」, 1933년 8월 1일.
- 朴平植, 2004, “朝鮮前期 開城商人의 商業活動”, 「朝鮮時代史學報」, 제30집.
- 善生永助, 1924, 「朝鮮人の商業」(朝鮮總督府 調査資料第11輯), 朝鮮總督府總督官房文書課.
- 양정필, 2002, “19세기 개성상인의 자본전환과 삼업자본의 성장”, 「學林」, 제23집.
- _____, 2008, “근현대 개성상인 경제조직 시론-3대 상업제도와 3대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역사문제」, 제20호.
- 吳 星, 1992, “朝鮮後期 人蔘貿易의 展開와 蔘商의 活動”, 「世宗史學」, 제1집.
- _____, 2002, “한말~일제 시대 개성의 시변제”,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1집.
- 이훈섭, 2002, “개성상인들의 상업경영술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연구」, 제16권 제2호.
- 長尾崎俊, 1929, “開城ノ時邊ニ取テ”, 조선식산은행 개성지점 조사보고.
- 李相國, 1988, “개화기 서양부기·회계제도입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대학원박

사학위논문.

- 전성호·허홍식·정기숙 외, 2011, 「한국전통회계와 내부통제시스템 I」, 민속원.
- 전성호·허성관 외, 2011, 「한국전통회계와 내부통제시스템 II」, 민속원.
- 전성호, 2011a, 「한국 전통 회계의 원장 계정 기입기법과 이탈리아 비둘기집 이론과의 비교 연구」, 「사학연구」, 제101호.
- _____, 2011b, 「대명률직해에 투영된 고려 회계의 특징」, 고문서학회 제169회 연구 발표회.
- _____, 2011c, 「조선후기 환어음 거래 분석(1887~1900) : 박영진가 회계장부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38집.
- _____, 2011d, 「개성 시변제도 연구 : 개성상인 회계장부 신용관련 거래 분석(1887~1900)」, 「대동문화연구」, 제78집.
- 정기숙, 2011, “사개송도치부법의 기장원리와 장부조직에 관한 연구 박영진가의 장부(1887년 8월 15일~1893년 9월 15일)를 중심으로”, 「한국 전통회계와 내부통제시스템 II」, 민속원.
- 정기숙·박해근·이중희, 2002, 「회계사상과 회계기준의 발전」, 經文社.
- 최상문·김확열, 2008, “松商과 晉商의 商道에 관한 比較研究”, 「韓國民族文化」, 제32집.
- 한만호, “디지털시대에 있어서 개성상인의 기업가정신에 대한 연구”, 학술연구지원 보고, 태평양장학문화재단.
- 허성관, 2011, “한국 전통 회계 기록의 책임성과 진실성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 「한국 전통회계와 내부통제시스템 II」, 민속원 2011.
- 玄丙周, 1916, 「實用自修 四介松都治簿法 全」, 金東緝 發行 德興書林 藏版.
- 홍희유, 1986, “17세기 이후 인삼재배의 발전과 자본주의적 삼포경영”, 「역사과학」, 3. 1986.
- _____, 1989, “송도 4개 문서(四介文書)에 반영된 송상(松商)들의 도가(都賈)활동”, 「역사과학」, 6: 1962.
- 朴永進家 會計帳簿:
- 歲丁亥八月日上吉辰 日記第一.
- 歲甲午四月日上吉辰 日記第二.
- 光武二年戊戌九月日上吉辰 日記第三.
- 光武五年辛丑四月日上吉辰 日記第四.
- 光武七年癸卯十月日上吉辰 日記第五.
- 光武九年乙巳二月日上吉辰 日記第六.
- 光武十年丙午十一月日上吉辰 日記第七.

- 光緒拾參年丁亥八月日上吉辰 外上他給并付第一。
 歲光緒十八年壬辰九月日上吉辰 周會計冊。
- Aiken, Maxwell, and Lu, Wei, 1998, The Evolution of Bookkeeping in China : Integrating Historical Trends with Western Influences, *Abacus*, 34(1).
- Alfred E. Lieber, 1968, Eastern Business Practices and Medieval European Commerce, *The Economic History Review*, New Series, 21(2).
- Barak D. Richman, 2006, How Community Institutions Create Economic Advantage: Jewish Diamond Merchants in New York, *Law and Social Inquiry*, 31(2).
- Bloom, Robert and Solotko, John, 2003, The foundation of Confucianism in Chinese and Japanese accounting, *Accounting, Business and Financial History*, 13(1).
- Chiapello, Eve, 2007, Accounting and the birth of the notion of capitalism, *Critical Perspectives in Accounting*, 18.
- Cohen, Ira J., 1981, Introduction to the Transaction Edition: Max Weber on Modern Western Capitalism, in Max Weber, trans. by Frank H Knight, *General Economic History, reprint of the 1927 translated edition with a new introduction by Ira J. Cohen*, New Brunswick, USA : Transaction Books.
- D. E. Smith and L. Karpinski, 1911, *The Hindu Arabic Numerals* Boston.
- de Roover, Raymond, 1956, The Development of Accounting Prior to Luca Pacioli : Account-books of Medieval Merchants, in A. C. Littleton and B. S. Yamey, eds., *Studies in the history of accounting*, Sweet and Maxwell.
- Derks, Hans, 2008, Religion, capitalism and the rise of double-entry book-keeping, *Accounting, Business and Financial History*, 18(2).
- Jere Cohen, 1980, Rational Capitalism in Renaissance Ital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6): 1340-1355.
- John H. Pryor, 1977, The Origin of the Commenda Contract, *Speculum*, 52(1).
- Jun, Seong Ho, and Lewis, James B., 2006, Accounting Techniques in Korea : 18th-century Archival Samples from a Non-Profit Association in the Sinitic World, *Accounting Historians Journal*, 33(1).
- Littleton, A. C., 1956., Evolution of the Journal Entry, in A. C. Littleton and B. S. Yamey, eds., *Studies in the history of accounting*, Sweet and Maxwell.
- _____, 1928, Pacioli and Modern Accounting, *Accounting Review*, 3(2).
- _____, 1927, The Antecedents of Double-Entry, *Accounting Review*, 2(2).
- _____, 1928, The Evolution of the Journal Entry, *Accounting Review*, 3(4).
- _____, 1966, *Accounting Evolution to 1900*, New York : Russell and Russell.

- Pacioli, Luca, 1924, translated by Pietro Crivelli, *An Original Translation of the Treatise on Double-Entry Book-Keeping* (The Institute of Book-Keepers, Ltd., [1494] 1924).
- Sombart, Werner, 1919, *Der moderne Kapitalismus 2 vol.* Munich : Humblot and Duncker.
- Udovitch, 1962, At the Origins of the Western Commenda: Islam, Israel, Byzantium?, *Speculum* 37, Medieval Academy of America.
- Weber, Max, 1927, trans. by Frank H. Knight, *General economic history*, George Allen and Unwin,
- _____, 1951, trans. by Hans H. Gerth, *The Religion of China, Confucianism and Taoism* (New York: The Free Press).
- Yamey, B. S., 1927, Scientific Bookkeeping and the Rise of Capitalism, *The Economic History Review*, 2nd ser., 1:2 and 3, 1949. Weber, Max, trans. by Frank H. Knight, *General economic history*, George Allen and Unwin.
- _____, 1964, Accounting and the Rise of Capitalism: Further Notes on a Theme by Sombar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2): 117-136.

A Cost Analysis of Gingseng Production in late Chosŏn Dynasty

- Cost Accounting based on Journals, Assets Ledgers, and final
statements preserved in the household of Mr. Pak Yŏngjin
in the city of Kaesŏng -

Seong-Ho Jun*

Abstract

This paper employs a cost analysis to explain the predominance of Kaesŏng merchants in the ginseng industry. Ginseng production takes from two to six years and produces an extremely valuable produce like the Jewish diamond industry. The paper addresses the capitalist bookkeeping technology that established a formal rationality in the pursuit of profit. The paper finds cost accounting to have been essential to the ginseng industry. Finally, what does the existence of such a sophisticated system tell us about late Chosŏn society? Max Weber famously linked capitalism, rationality, double-entry bookkeeping, and European religion to explain why capitalism arose only in Europe, but the findings here show that capitalism, rationality, and double-entry bookkeeping existed in Chosŏn-period Kaesŏng.

<Key Words> Kaesŏng merchant, Gingseng industry, cost analysis, late Chosŏn Dynasty

* The Academy of Korean, Social Science/Economic History in Korea, Professor.